

'인구 대국' 증시 희비...인도 뜨고, 중국 지고

2024.04.03 18:49 한국경제

- +

中·홍콩 시총 3년간 5조弗 증발

인도 니프티50은 8년 동안 상승

[신정은 기자]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에서 지난 3년간 5조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도 증시는 8년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증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뜨는 인도 증시, 지는 중국 증시



2일(현지시간) HSBC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1년 이후 3년간 4조8000억달러(약 6500조원) 줄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3년간 증발한 시총은 최근 떠오른 인도 증시 시총인 4조6300억달러를 넘어선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대형주 30개로 구성된 대표 주가지수인 CSI300지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이 지수는 11.4%나 떨어졌다. 홍콩 항셱지수는 4년 연속 내렸으며 지난해 하락률은 13.8%에 달했다. 두 지수 모두 지난해 주요 아시아태평양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했다. 시장 기대와 달리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 경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주가도 덩달아 하락했다.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 등 많은 중국 부동산 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해 있어 홍콩거래소도 영향을 받았다.

니콜라스 아구진 전 홍콩증권거래소(HKEX)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과 각국의 고금리 정책, 지정학적 우려 등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홍콩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인도 벤치마크인 니프티50지수는 8년 연속 상승했다. 2023년 상승률은 20%에 달했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는 올해 1월 홍콩을 제치고 미국, 중국 본토,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에서 기업공개(IPO)가 급감한 것과 달리 인도 증시에서는 지난해 220건의 IPO가 이뤄졌으며 69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지 찬 EY글로벌 IPO 책임자는 "중국 IPO 시장이 크게 둔화한 반면 인도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 들어 중국 주식을 팔고 인도로 향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 주식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실제 올 들어 3일까지 CSI300지수는 4% 올라 인도 니프티50지수 상승률인 3.2%를 소폭 웃돌았다.

제임스 도널드 라자드자산운용 신흥시장 총괄은 "중국 주식 가격이 점점 낮아져 앞으로 투자해야 할 명분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도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은 기자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